

4-19-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솔로몬의 노래 2:1-13

말씀제목: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듣는
성령의 음성

솔로몬왕은 자신이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1-
2)

솔로몬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솔렘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솔 2:2)

이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가시 같은 박해를
받으며 살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장면을 말했습니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칫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솔 2:3-6)

솔렘미 여인은 자신이 왕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즉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솔 2:7)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왕이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자신의 신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계 4:1)

솔로몬 왕이 술렘미 여인에게 일어나 떠나자라고 한 말 속에 숨겨진 암시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 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솔 2:10-13)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때와 시기에 대해 한 가지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가 오순절에 드리는 흔드는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암시를 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틀날까지 오십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십분의 이로 만든 빵 두 덩어이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열매들이라.”(레 23:15-17)

여기서 누룩이 있는 빵 두 덩어리는 앞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늘을 향해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흔든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올라가는 휴거의 날에 일어나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약혼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맞이하는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세상이 살 곳이 못된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라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히 11:38) 아멘!
할렐루야!